

# 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 IV : NAFTA 전후 멕시코의 노동시장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980년대와는 달리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영역에 대한 투자자유화 협정을 포함한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나 양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자국의 해외투자 진흥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시장지향적 정책 도입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의 FTA는 미국식 경제체제 표준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미국과의 FTA는 본질적으로 국내 이해당사자들간에 논쟁적용을 부추기고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 조정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첨가된다.

그러나 아직 한·미 FTA는 물론이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 의해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국가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호의 '기획특집 : NAFTA' 에 이어 이번 호까지 4회에 걸쳐 소개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 에 관한 기획연재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의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서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 서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1994년 1월 1일 발효된 이래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멕시코의 총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의 발전은 미미하였다. 조립가공제조업인 마킬라도라의 고용은 크게 늘어난 반면, 농업인구는 크게 줄었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NAFTA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멕시코 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독특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 멕시코 경제는 NAFTA 발효 첫 해인 1994년 12월 20일 폐소화 평가절하와 함께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았다. 이는 수출과 FDI 면에서 비상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으나, 실업률과 실질임금 등 노동복지 부문에서는 비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멕시코 총 수출의 87%는 미국을 향한다. 따라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2001년 9·11 테러는 멕시코 경제에 최대의 악재로 작용했다. 셋째, 멕시코는 저임노동력을 주요 국제경쟁력 요소로 삼고 있다. 멕시코와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멕시코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추락시켜 투자자본 이탈, 임금수준 개선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NAFTA는 멕시코 경제 현상의 여러 설명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본고는 이 점을 전제로 하고 NAFTA가 발효된 이후 오늘날까지 멕시코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 거시경제 추이

### 수출

멕시코의 총 수출은 <표 1>에서 보듯이 NAFTA 발효 직전인 1993년 518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2005년 2,142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나 멕시코를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도약시켰다. 멕시코는 1965년부터 미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수출용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해 관세 환

〈표 1〉 멕시코의 총 수출 및 제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총수출	제조업 총 수출	마킬라도라 수출
1993년	51,886	41,073	21,853
1994년	60,822	49,821	26,269
1995년	79,542	65,789	31,103
1996년	96,000	79,610	36,920
1997년	110,431	94,055	45,166
1998년	117,539	105,449	53,083
1999년	136,362	121,515	63,853
2000년	166,120	144,725	79,467
2001년	158,780	140,748	76,880
2002년	161,046	141,634	78,098
2003년	164,766	140,632	77,467
2004년	187,999	157,747	86,951
2005년	214,233	175,166	97,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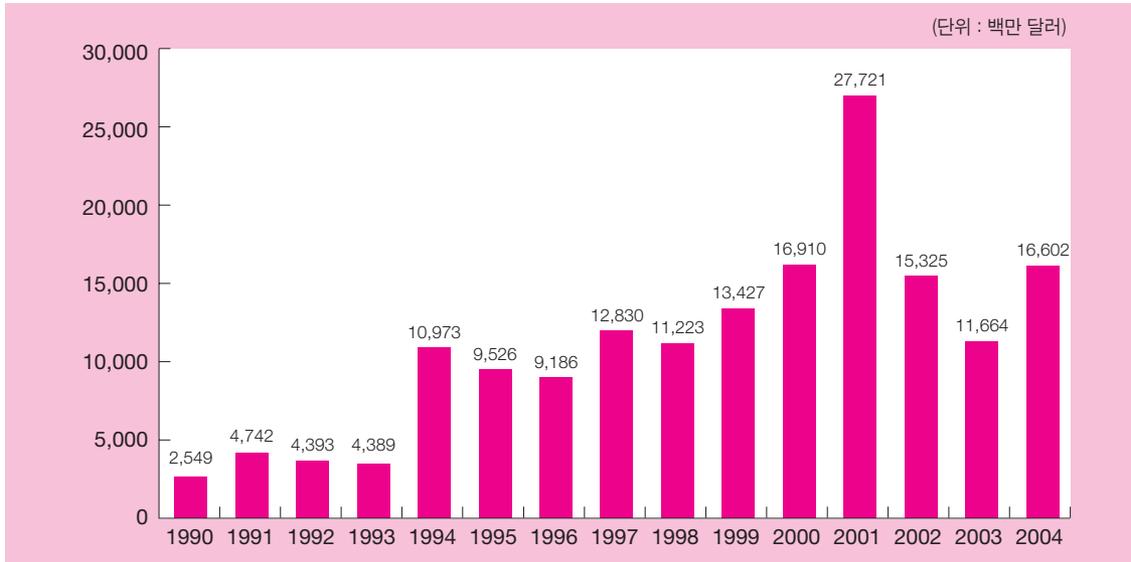
출처 : INEGI.

급 및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립가공제조업, 이른바 마킬라도라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미국과의 FTA 계획이 발표된 1990년을 전후해 마킬라도라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1990년 총 수출의 13.2%에 머물던 마킬라도라 수출은 1991년 37.1%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47%선에 이르고 있다. 마킬라도라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 의류 등이 집중되어 멕시코 제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수출 규모는 멕시코 총 제조업 수출의 55%를 접하는 수준이다.

## 외국인직접투자

NAFTA는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의 입지조건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DI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FDI는 1993년 44억 달러 수준에서 2001년 정점인 277억 달러를 지나, 2004년 166억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는 다른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가들에서 추진된 개방정책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이 크게 늘어난 시기로서 만일 멕시코

[그림 1] 멕시코의 FDI 유입 추이



자료 : IMF, IFS CDRO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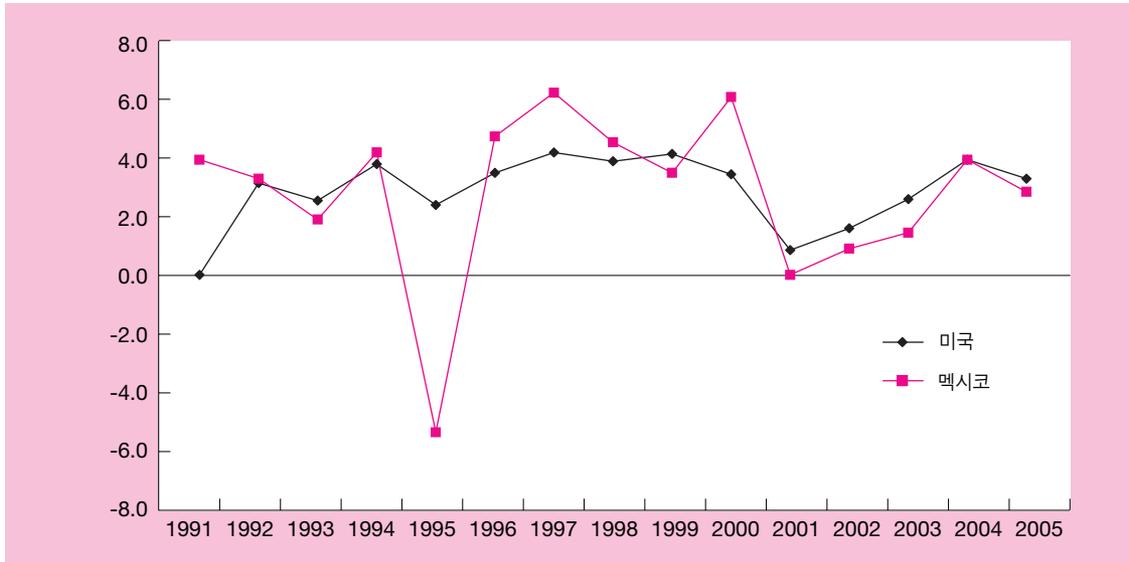
가 NAFTA 여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멕시코로의 FDI 유입은 이보다 크게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제성장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는 폐소화 고평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발생한 1994년 말 외환위기로 1995년 -6.2%의 후퇴를 경험했지만, 빠른 회복에 성공하여 1996~2000년 연평균 5.4%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NAFTA 발효 이후 심화되어 미국 경기가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호황을 누릴 때 멕시코 경제도 세디오 행정부하에서 봄을 탔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대미수출 비중이 1986~1993년 연평균 72.3%에서 1994~2004년 연평균 86.9% 수준으로 높아졌고, NAFTA 이후 유입된 FDI 중 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46.7%에서 2005년 65.8%로 꾸준히 증가해 대부분의 신규 생산투자가 미국시장을 겨냥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멕시코 경기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경기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2001년

[그림 2]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IMF, IFS CDROM 2005.

9·11사태를 계기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자 멕시코 역시 불황의 늪에 빠져 멕시코 경제는 2001~2003년 연평균 0.6%의 성장에 그쳤다. 그후 2003년 총선에서 멕시코의 집권 국민행동당(PAN)은 의회내 의석을 대폭 잃어 행정부의 경제개혁정책 실행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외채 상환과 재정수지 건전화, 인플레이 억제에 주력하면서 공공투자를 축소함으로써 2004~2005년 경제성장은 평균 3.6%에 머물렀다.

## ■ 고용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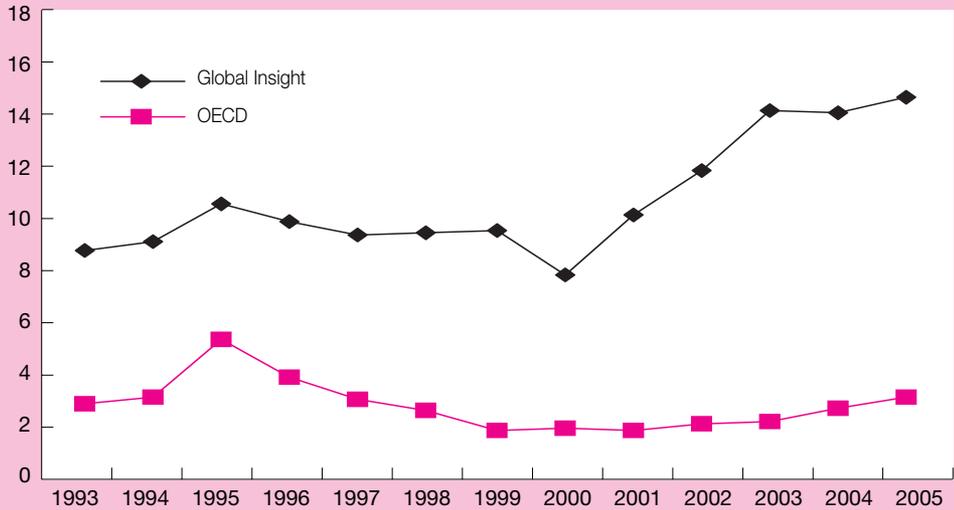
멕시코의 인구증가율은 1980년대 이래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 1.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성장 시대인 1970년 중반 베이비 붐 속에서 태어난 멕시코인들이 1990년대

에 노동인구에 흡수되었고, 1980년대 이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 멕시코의 노동력 과잉은 심화되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이유는 출산율 하락과 함께 여권신장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소득을 보전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총 노동력은 NAFTA가 발효되기 직전의 3,370만 명에서 2004년 4,340만 명으로 증가했다. 멕시코에서는 매년 신규노동인력이 2.5%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동력 공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연평균 5~6%의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멕시코의 최근 성장 추이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실정이다.

멕시코의 실업률 통계는 멕시코 정부 통계가 완전실업에 기초하고, Global Insight와 같은 민간 분석기관이 일부 불완전 고용을 포함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멕시코 통계당국(INEGI)은 2004년까지 12세 이상의 노동력으로서, '경제활동참가를 활발히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당 1시간도 일하지 않은 경우를 실업으로 간주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통계가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05년부터 조사 대상을 14세 이상의 노동력으로 제한한 반면, '경제활동참가를 활발히 추구한다'는 산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이전보다는 다소 높은 새로운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OECD 통계는 INEGI가 통계 기준을 바꾸기 이전 자료에 근거한 수치이다. 반면, Global Insight는 일부 불완전 고용상태를 반영하는 자신들 고유의 산정 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Global Insight가 발표하는 멕시코 실업률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어느쪽 자료이든 멕시코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1995년 높았다가 회복 기조로 이어가면서 2000년에 가장 낮았고, 그 이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는 2001년 이래 미국 경기 불황과 중국의 WTO 가입 등 외생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이래 총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점은 그만큼 국내 일자리를 앗아가는 요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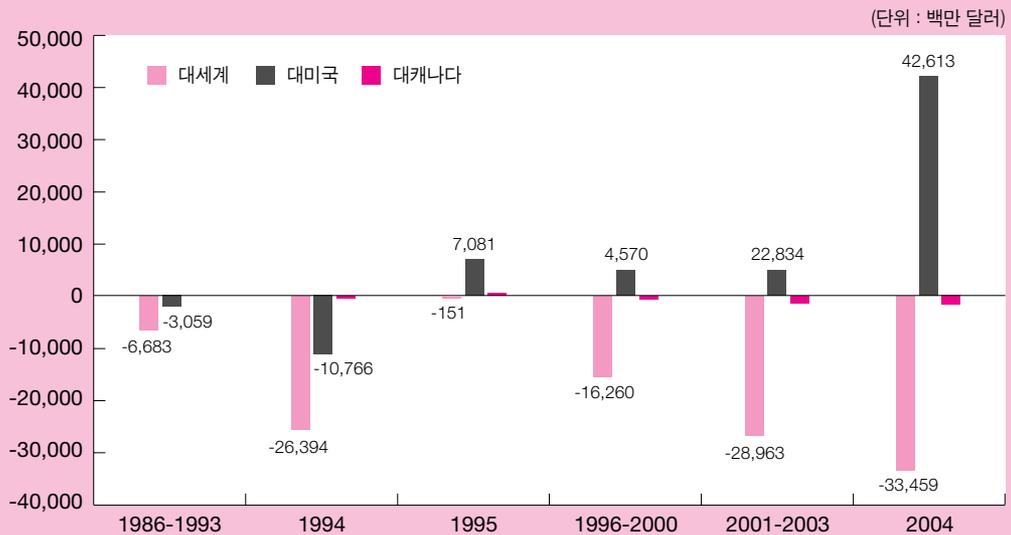
멕시코 실업률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서 NAFTA와 관련한 점은, 아래 상술하는 바와 같이 NAFTA 발효 이후 영세농업 부문의 고용이 격감하는 한편, 수출제조업(주로 북부지역 마킬라도라)에서는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수출제조업의 제한적인 후방연관효과로 말미암아 내수 제조업이 어려워진 국제경쟁 여건 속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3] 멕시코의 실업률 (발표 기관별)



자료 : OECD(2006); Global Insight(2006).

[그림 4] 멕시코의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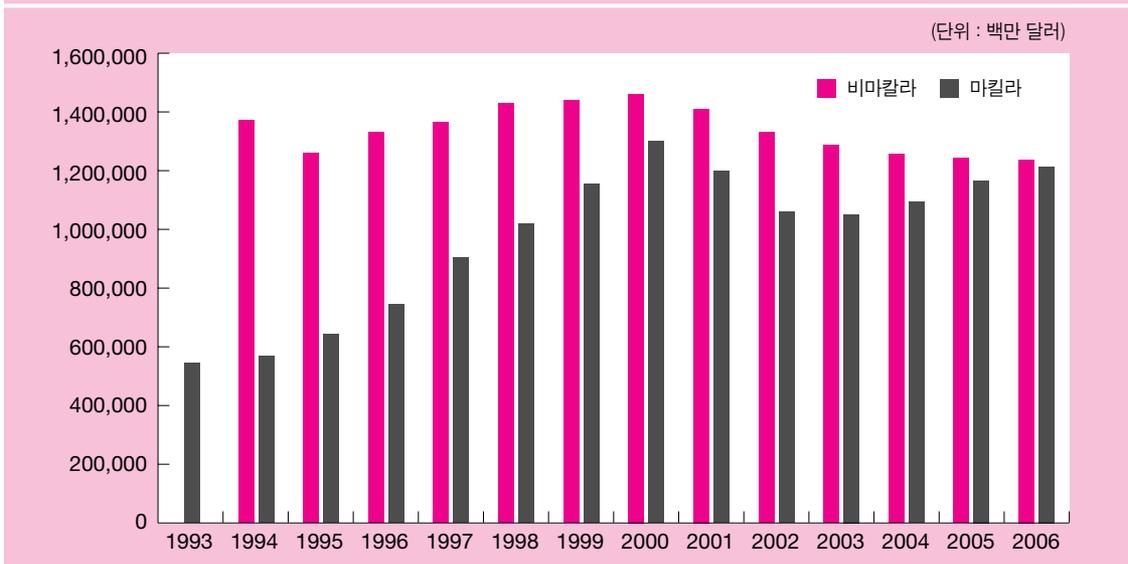
자료 : IMF, DOTS CDROM(2005).

## 제조업 고용

멕시코의 제조업은 크게 마킬라도라 산업과 비마킬라도라 제조업으로 나뉜다. NAFTA와 멕시코 제조업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멕시코가 NAFTA로 인해 미국 공산품 수입시장에 얼마나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은 NAFTA에서 대부분의 멕시코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는데 섬유류분야가 가장 큰 인하폭을 보였고 신발, 화학제품, 잡화, 수송장비 등에서도 상당한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마킬라도라 제조업의 고용수준은 2006년 8월 현재 126만 2,896명으로 NAFTA 발효 해인 1994년의 약 140만 명 수준보다 밑돌고 있다. 비마킬라도라 제조업의 고용은 1995년 외환위기를 맞아 크게 떨어진 뒤 2000년까지 회복세와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경기와의 동조화 현상 및 중국의 부상 속에서 2001년 이래 미국 경기 불황의 여파로 하강세로 돌아섰다. 반면,

[그림 5] 멕시코 제조업의 고용 추이 (연평균)



주 : 2006년 통계는 8월 기준, 비마킬라도라 제조업의 1993년 통계 누락.  
출처 : INEGI(2006).

마킬라도라 산업의 고용은 1993년 54만 2,073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00년 129만 1,232명에 달했다가 그 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으로의 투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2003년까지 약 23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2006년 8월 현재 122만 3,155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NAFTA 이전보다 68만 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NAFTA 이후 멕시코의 괄목할 만한 제조업 수출 실적은 멕시코의 제조업 고용 수준을 기대만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마킬라도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비수출 부문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이나 비마킬라도라 제조업의 수출 부문이 외국산 중간재를 97%까지 수입한 후, 3%의 저임노동력을 투입해 최종재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 멕시코의 수출제조업은 후방연관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어서 수출 증가에 따른 승수효과가 높지 못하다. 마킬라도라의 관세 환급 혜택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것이었으나 멕시코 제조업자들도 이같은 혜택을 내국인 투자에게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PITEX라는 유사한 정책수단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고 있다.

## 농업 고용

미국은 NAFTA를 통해 설탕을 제외한 멕시코산 농산물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쿼터를 높였다. 멕시코는 농산품을 A, B, C, C+ 등 4그룹으로 나누어 1994년, 1998년, 2003년, 2008년 각각 1월 1일을 기해 단계적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2003년 1월 개방된 C 그룹에는 보리, 닭고기 등이 포함되었고, 2008년 개방될 C+그룹에는 멕시코인의 주식인 옥수수, 콩, 오렌지주스, 분유, 설탕 등이 들어 있다. 이 중 C+그룹에 속한 옥수수는 NAFTA 발효후 가장 기간(15년) 동안 관세철폐를 유예하되 이 기간 동안 매년 관세할당(TRQ)을 늘려가며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키로 되어 있었다. 옥수수 쿼터는 NAFTA 발효 첫 해인 1994년 250만 톤에서 2003년 326만 톤으로 증가했는데 실제 수입량은 매년 500만 톤을 넘어섰다. 증가하는 식용 및 사료용 옥수수 수요로 국내 소비량은 2,500만 톤 수준인데 국내 생산은 2,000만 톤 미만에 머

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대신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했다. 고율관세를 적용하면 수입 옥수수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데 국산 옥수수가 부족해 쿼터 이상으로 수입해야 하는 마당에 굳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켜 저소득층이나, 축산농가에 부담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설명이었다.

멕시코의 제조업이 대미무역에서 외환위기 이래 꾸준한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은 1995년 미미한 흑자를 보았을 뿐 그후 만성적인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의 농업에서 대미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부문은 과일과 야채 부문 등에 불과하다. 멕시코 농업의 고용은 NAFTA 이전 810만 명 수준에서 2006년 초 약 60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멕시코 통계 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농업 고용자수가 이처럼 급감한 데에는 NAFTA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농정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

멕시코 농촌의 문제는 농지소유제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정부는 NAFTA에 앞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소유제도를 개혁했다. 멕시코혁명 이전 멕시코 농지의 70%는 약 300명의 대농장주의 소유였다. 멕시코 혁명(1910-1917)의 결과로 제정된 1917년 헌법은 농민혁명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라티폰디오(대농장)를 에히도(공동소유농장)로 재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재분배는 이로부터 70여 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광활한 북부의 축산 농가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남부 곡물 농가가 배당받은 토지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1980년대에는 평균 1.4헥타르(약4,200평)에 불과했고, 1990년대에는 더 이상 분배할 토지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에히도는 헌법에 의해 매각도 임대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남아 1명에게만 상속이 허용되어 수백만의 멕시코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친척간에 편법으로 땅을 나누어 경작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법에 의해 에히도는 대출 담보가 될 수 없으며 농가의 부채 미상환 대가로 압수될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길이 막혔고 에히도제도는 농민을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키는 장치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2년 농가의 소규모화와, 소유권 제한 등이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에히도의 매각, 임대, 담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제27조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각된 에히도는 겨우 1%에 불과하며, 농민들의 잦은 소유권 반환 소송으로 에히도는 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멕시코의 산업별 고용 분포

(단위 : %)

농업, 임업, 수산업		2차 산업		서비스 산업	
1993	2006	1993	2006	1993	2006
25.7	14.3	23.3	25.7	51.0	60.0

출처 : INEGI, 2006.

또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사에 필요한 투입요소, 즉 고품질의 종자, 비료, 전기, 농기계, 금융지원 등이 적시에 경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하지만 농촌공급 체계에는 비료공사(FERTIMEX)와 국가종자회사(PNS) 등 독점 국영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민영화해 공급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이들 독점기업들의 반발로 끝내 경쟁체제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 농가는 생산물을 매각해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멕시코 농촌의 보관·수송체계는 정부의 미미한 인프라투자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판매망 역시 독점 분배업자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현실이다. 어느 정부도 이같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진지하게 개선해 보려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시도된 일부 미온적인 조치도 관료주의와 부패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대책으로 미국과의 경쟁체제에 내몰린 멕시코의 농가가 몰락하는 것은 애초부터 명약관하한 일이었다. 멕시코 농업 고용의 급감에 따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1993년 수준에 비해 11.4%포인트 줄었다. 농촌 실직자의 상당수는 비숙련 제조업 노동력 또는 도시의 비공식 부문으로 흡수되거나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대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농업과는 달리 NAFTA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다수의 서비스업이 비교역재이고, 금융서비스나 통신업이 부분적으로 NAFTA의 영향에 들긴 하였으나 다수의 인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으며,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도 미미한 편이다. 오히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1993년 51%에서 2006년 60%로 높아진 것은 1차산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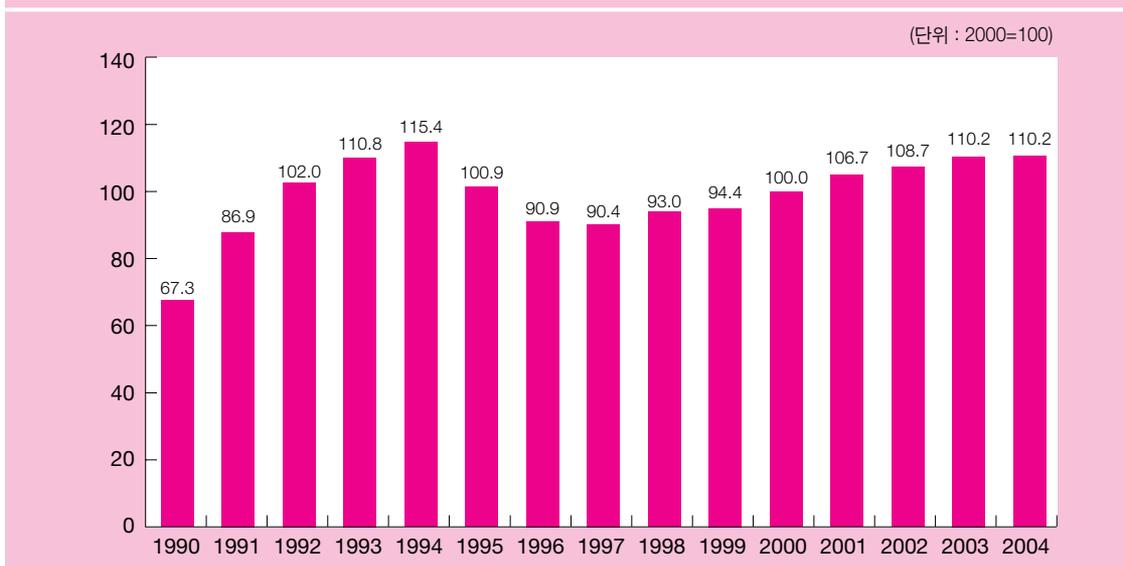
이탈한 노동력이 가내수공업, 노점상, 개인용역, 수선업 등 손쉬운 자영업 또는 비공식 부문으로 흡수되었음을 나타낸다. 멕시코의 비공식 부문은 학자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 보는데 46%까지 보는 이들도 있다.

## 임금수준

멕시코의 실질임금 수준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현재 NAFTA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다. 그 추이는 1995년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가 점차 회복되어 최근 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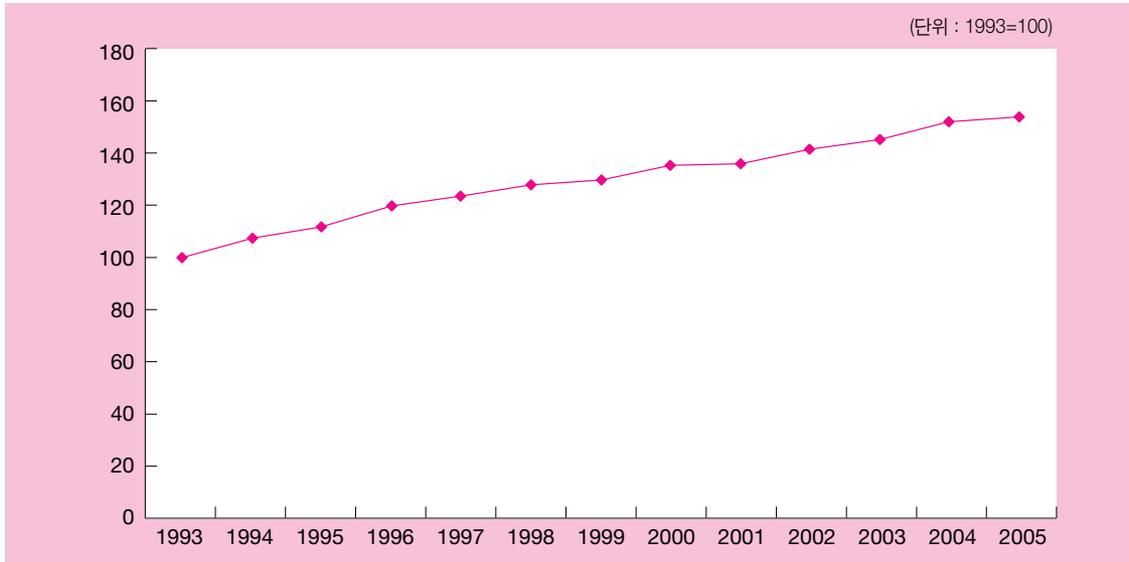
그러나 이같은 실질임금 하락은 NAFTA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994년 말 폐소화 평가절하에 따라 수입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폐소화의 대달러 환율은 금융

[그림 6] 멕시코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



자료 : IMF, IFS CDRROM(2005).

[그림 7] 멕시코 제조업 생산성 지수의 변화 추이



자료 : INEGI, 2006.

위기 이전 3.4 수준에서 5.3으로 폭락한 이래 최근 10.9 수준에까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1995년 52.0%로 치솟았던 것을 비롯해 1999년까지 두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명목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생산성이 NAFTA 발효 이래 꾸준히 향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실질임금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다. 이같이 생산성 향상이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첫째, 멕시코의 노동력 공급이 대다수 부문에서 노동력 수요를 능가하기 때문이며, 둘째,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요소이동 여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멕시코의 임금이 멕시코의 생산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임금 수준과 생산성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 동결을 실시한 것도 실질임금 수준이 개선되지 못한 요인이다.

## ■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평등

멕시코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역사적 산물로서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일부 집단으로의 부의 편중, 경제위기 반복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도산, 개인파산, 실업 등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멕시코에는 미국의 무역조정법(TAA)처럼 FTA로 인한 실직자 구제나 전직교육과 같은 사회보호망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고용불안의 여파는 클 수 밖에 없다. 멕시코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크게 높아졌으나 2004년 현재 NAFTA 발효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지역간 소득불평등은 1980년대 경제개방화와 함께 경제 중심축이 변화하면서부터 심화되어 온 현상이다. 즉, 1940년~1985년까지 내수 제조업 중심 벨트가 구축되었던 멕시코시 주변의 제조업 기업들은, 무역자유화 이후 누적된 비효율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타격을 받게 된 반면, 미국 접경 북부지역에서는 수출주도 외국기업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경쟁력 및 효율성을 확보해 숙련노동 임금이 상승하고 이곳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시 주변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급락하고 미국 접경지역의 고용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도 특히 NAFTA 이후 남부지역의 생계농과는 달리, 북부지역 농가는 현대적 경작기술 및 관개수로를 확보하여 멕시코가 비교우위에 있는 과실 및 채소류 경작 및 수출을 확대시키면서 북부지역 농업 성장을 견인하였다.

## ■ 결론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NAFTA 이후 산업별·지역별로 다양한 궤적으로

<표 3> 멕시코의 지니계수

(단위 : %)

	1992	1996	2000	2002	2004
지니계수	0.4749	0.4558	0.4811	0.4541	0.4600

출처 : INEGI, 2006.

보여왔다. 중간재 수입에 의거한 수출산업의 번성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만성 무역적자와 비수출산업의 도태를 불러옴으로써 비수출제조업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정의 실패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약화는 농업인구를 격감시키고 이농민의 비공식부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멕시코 제조업의 생산성은 NAFTA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실질임금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는 NAFTA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경제 활력이 북부지역으로 집중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멕시코의 특수한 여건하에서 발생한 결과들이다. 즉, 마킬라도라라는 조립가공산업에의 제조업 집중, 미국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무역의존, 저임노동력에 기초한 취약한 국제경쟁력, 토지소유 제도를 비롯한 농정의 실패, 노동력의 공급과잉, 미국과의 접경 등이 그것들이다. 멕시코가 이같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기,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를 개선시킴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현재 멕시코의 R&D 수준은 우리나라(GDP 대비 2.59%)의 1/6에도 못미치는 0.39%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R&D 수준이 낮은 이유가 잦은 경제위기를 겪은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의지 때문이라면, 민간부문은 오랜 정부의 보호 관행 때문에 R&D 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인프라부문의 개혁은 기득권 독점기업들의 저항과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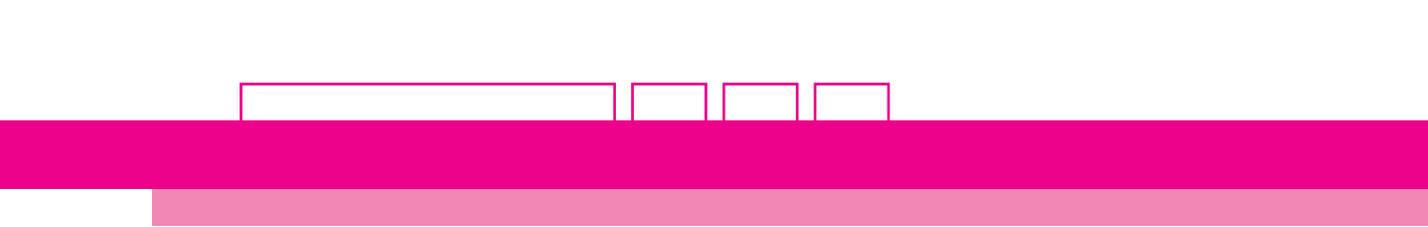
한국 경제는 멕시코의 독특한 여건과는 차이가 많지만,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멕시코 사례로부터, 끊임없는 성장동력 창출, 실현가능한 농업정책 비전,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KL**

---

#### 참고문헌

---

- Chiquiar, Daniel(2005), “Why Mexico’s Regional Income Convergence Broke Dow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7, pp. 257–275.
- Esquivel, Gerardo and José Antonio Rodríguez-López(2003), “Technology, Trade,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Before and After NAFT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 pp. 543–565.

- 
- Hufbauer, Gary Clyde and Jeffery J. Schott(2005), *NAFTA Revisited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Lederman, Daniel, William F. Maloney and Luis Serven(2003),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n and Caribbean(LAC) Countries :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The World Bank.
  - Polaski, Sandra(2006), “The Employment Consequences of NAFTA”, Testimony submitted to the Senat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of the Committee on Finance, Sept. 11, 2006.
  - Ramirez, Miguel D(2003), “Mexico under NAFTA : a Critical Assessmen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3, pp. 863–892.
  - Robertson, Raymond(2004), “Relative Prices and Wage Inequality : Evidence from Mexico”,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4, pp. 387–409.